



‘작지만 강력하다’... 소형 SUV 완전 변신

소형 SUV 시장의 강자인 기아 셀토스가 6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사진은 5일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고창읍성 일원까지 직접 주행한 시승 차량.

기아 ‘디 올 뉴 셀토스’ 직접 타보니

세련미에 실용적인 상품성까지...외장 디자인 장차 우수한 연비 1.6 하이브리드 추가...안전 성능 강화 첨단 보조 시스템 탑재...넓고 다재다능한 실내 공간

기아의 ‘휴자 모델’이자 소형 SUV(스포츠투윙리터차량) 시장의 강자인 셀토스가 6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디 올 뉴 셀토스’는 소형 SUV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커진 차체와 강화된 상품성으로 중형 SUV 못지않다. 뛰어난 디자인과 실용적인 상품성, 신규 라인업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변신했다.

5일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고창읍성 일원까지 편도 45km, 왕복 90km 구간을 직접 주행하며 신형 셀토스를 시승했다. 1.6 가솔린 터보와 1.6 하이브리드 등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모두 경험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확인했다. 먼저 셀토스는 외관부터 기아 특유의 강렬한 이미지가 표출됐다.



기아 셀토스 내부

전면부는 강인하고 와이드한 이미지를 강조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램프와 일체화된 수직의 그릴 패턴과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인 첫인상을 보여줬다. 또 웅장한 그릴과 대비를 이루는 날렵한 디자인에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은 독창적인 디자인의 주간주행등을 반영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전면부 범퍼 하단은 안정적인 형상의 가니쉬를 적용한 와이드 스킵 플레이트로 강인한 모습을 한층 돋보였다. 측면부는 견고한 이미지의 개성있는 실루엣과 사선의 캐릭터 라인이 다이나믹한 느낌을 극대화시켰고, 차체 하단의 대담한 클래딩과 도어 사이드실이 진보적인 SUV 스타일을 연출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실내 공간도 눈에 띄었다. 실내는 넓고 심플한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차량 외관의 벨트라인에 맞춰 설계한 클러스터는 균형감 있고 깔끔한 느낌을 줬으며,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실내 전면부 공간이 한층 더 넓어 보였다. 여기에 전자식 변속 레버로 콘솔 공간 활용성과 사용 직관성이 높아 보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로 시인성도 향상됐다. 또 파노라믹 선루프는 공간감을 확장시켜 실내 개방감을 극대화시켰고, 시트는 모던한 이미지에 대조되는 투톤으로 유니크한 느낌을 더했다. 셀토스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거 장착됐다. 스티어링 휠 그림 감지,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이탈방지, 후측방 충돌방지, 지능형 속도 제한, 하이빔, 후측방 모니터,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 등이 적용됐다. 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및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으로 주행 안전성 및 편의성도 높였다. 여기에 후방 교차 충돌방지, 후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주차 거리 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도 운전 편의를 도왔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셀토스는 언제나 동급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왔으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 역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돌보이는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셀토스를 통해 글로벌 SUV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차, ‘2027 아이오닉 9’ 출시...본격 판매

현대자동차가 신형 ‘아이오닉 9’를 선보인다. 5일 현대차는 전동화 대형 스포츠윙리터차량(SUV) 아이오닉 9의 연식 변경 모델 ‘2027 아이오닉 9’를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트립별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패키지와 시승 이벤트를 함께 운영한다. ‘2027 아이오닉 9’는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 2열 통풍시트와 2열 스위블링 시트, 주력 트림인 프레스티지에는 발수 적용 1열 유리를 기본 적용했다. 기존 최상위 트림에만 적용되던 메탈 페달과 메탈 도어 컷프가 프레스티지까지 확대해 고급감을 강화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캘리그래피 전용 ‘블랙링크 패키지’를 신규 운영한다. 블랙링크 패키지는 스킵 플레이트,

실구매가 6000만원대 고객 선호 편의 사양 기본 적용



휠, 엠블럼, 크래쉬패드 등에 블랙 컬러를 적용해 세련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 전동화 플러그인 SUV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강조하는 디자인 패키지가 있다. 현대차는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했음에도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다. ‘2027 아이오닉 9’의 판매 가격은 7인승

익스클루시브 6759만원, 프레스티지 7325만원, 캘리그래피 7811만원이며, 6인승 익스클루시브 6817만원, 프레스티지 7374만원, 캘리그래피 7960만원이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 9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경우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고려했을 때 6000만원 초반대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이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한국자동차기자협회 등이 선정한 ‘올해의 차’를 수상한 것을 기념해 ‘드라이빙라운지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드라이빙라운지에 아이오닉 9를 시승한 후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IONIQ 9 x 보스(BOSE) 리미티드 에디션 스피커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소진공, 광주 골목상권서 현장 소통 ‘눈길’

전통시장 등서 간담회...정책 성과 점검·자생력 강화 논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광주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현장을 점검하고, ‘광주지역 골목상권 희망 ON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장 행보는 전통시장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골목상권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태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1913송정역시장, 동명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 등을 방문해 상권 운영 현황을 살폈다.

또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 및 자치구 관계자,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 소상공인 대표들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체감 변화, 온누리상품권 활용 현황, 상권별 특화 전략과 함께 디지털 전환·마케팅·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 수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광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총 643곳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정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한 해 동안 579곳이 신규 지정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자치구별 현장 조사와 상인 간담회 등 밀착 행정을 통해 소규모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한 결과로, 정책 지원의 범위를 전통시장 중심에서 생활 밀착형 골목상권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진공 역시 이러한 지역의 노력에 맞춰 민관 협력을 통한 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먼저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를 지원하고, 상인조직 간 교류·소통 기반을 조성했으며, 지역유관기관 합동 소비촉진 캠페인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소진공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을 신설해 지원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o140@

2026년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 원우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광주 롯데호텔(구 라마다상무호텔)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3월~7월 / 2학기: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l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위아주는 남자)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트렌드포커> 기자
--	--	---	---	---	--

